

## “주여, 앞드리고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1일 오후 4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 다민족 교회 지도자들 및 성도들이 참석해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기독일보

###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여러 현안 놓고 인종·교파 초월해 합심 기도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1일 오후 4시에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 개의 기도 그룹이 2시간여 동안기도회를 이끌고 회개와 감사, 화해와 연합, 청교도 신앙 회복, 이스라엘 회복, 부흥, 선교, 다음 세대, 교육, 캘리포니아, 박해로부터 보

호, 나라의 지도자들,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서 참석자들은 합심해 기도했다.

메시지를 전한 한기홍 목사는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외면한 이유가 있다. 당시 유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미국이 똑같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나님께서서는 진노를 막아실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한 사람의 통곡을 통해 부흥

의 역사가 이뤄질 것이다. 한 사람의 입술에 불이 붙는다면 교회와 미국, 그리고 전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제나 시작은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며,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미스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미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다음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며 기도회를 이끌었다.

박성구 목사(주님세운교회)는 “미국의 청

교도들은 철저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목숨을 걸었다. 또한 미국은 120여 개국 넘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배풀고 도와주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국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 결과로 자연재해가 4배로 늘어났고 각종 범죄, 총기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하나님께도 돌아서면 살 수 있다.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자”고 회개를 촉구했다.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는 “주님께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세계에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 “지금 튀르키예에는 450만 명이 되는 무슬림 난민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내가 믿는 이슬람은 구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이 분명하다’는 해답을 들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고 선포했다.

이날 남가주의 다민족 교회 지도자들 및 성도들이 참석해 기도했으며, 32명의 다민족 교계 지도자들이 도전을 주고 기도회를 이끌었다. **토마스 멩 기자**

## 미 법원, 2개주 ‘미성년자 성전환수술 금지법’ 지지 판결

미국 켄터키와 테네시 주에서 통과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및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한 법안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지지를 받아 냈다. 크리스토퍼스트(CP)에 따르면, 제6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은 지난달 28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과 성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주법을 찬성 2, 반대 1로 승인했다. 다수 의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지명자인 제프리 S. 서튼 판사가 작성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명자인 아몰 R. 타파 판사도 두 개 주의 법안을 지지했다.

서튼 판사는 “켄터키와 테네시 주는 성 불쾌

감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치료를 규제하는 데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다”며 “헌법이 타당할 경우, 주는 아이들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실험적이지 않은 치료조치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이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의 또 다른 지명자인 헬렌 N. 화이트 판사는 반대 의견을 작성했다. 화이트 판사는 이 법이 “성별 및 성 순응에 기반한 차별을 유발하며, 미성년 자녀의 의료 결정을 내린 부모의 확고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법을 옹호하기 위해 법원 의견서를 제출한 보수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ADF 수석 고문 겸 항소 옹호 담당 부사장인 존 버쉬는 성명에서 “테네시와 켄터키 주는 입증된 장기적 혜택 없이 어린이의 신체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해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실험적인 의료 절차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6순회법원은 테네시와 켄터키주가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성장할 시간을 주는 법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는 데 올바르게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 대리를 지원한 법무법인 ‘에이킨 & 펠드(Akin & Feld LLP)’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테네시 주와 지역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라며 “테네시 주법과 그와 유사한 다른 모든 재정적 영향은 이미 수천 개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느낀 바”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 앞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평등을 부정하고, 가족과 의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보류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테네시와 미국 전역에서 우리 고객과 트랜스젠더의 헌법적 권리 수호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러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제마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023 밀알의 밤, '성령 안에서 한 가족'

'2023 밀알의 밤'이 <우리는 가족>이란 주제로 9월 29일(금), 30일(토), 10월 1일(주일) 사흘 동안 ANC온누리교회와 주님의영광교회,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밀알의 밤에는 개그맨 김영철이 메인 게스트로 나서 웃음과 감동, 공감을 이끌어내며 그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밀알의 밤을 은혜로 물들였다.

그는 지난 1999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사연부터 그의 특기인 영어 공부에 열중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여러 에피소드를 유쾌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며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2002년 선배 개그맨 이성미와 박미선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경공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나누고, 2011년 성지순례를 떠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체험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에 참



2023 밀알의 밤 메인 게스트로 선 김영철 씨는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

가해 좋은 성적을 받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전했다. 그는 "코비드를 거치며 조금 나태해진 신앙이 이번 밀알의 밤을 통해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과 용기를 주

는 일에 더욱 쓰임 받고 싶다"는 바람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밀알 장학생 소개 영상으로 출연한 '강동균' 형제는 정신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맑고 순수한 신앙과 가족들

간의 사랑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고 '남가주밀알 수어찬양단'이 <오직 예수 뿐이네>를 수어로 찬양했다. 올해는 '우리는 한가족'이란 주제에 걸맞게 김조엘, 전성환, 강동균, 제시카 송, 정요한 등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헌금송을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이번 밀알의 밤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주최측은,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시기에, 밀알의 밤이 성령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번 밀알의 밤이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선교단체인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주관했다. 김민선 기자

## 솔로몬 대학, 가을 음악회 통해 신학생 후원



솔로몬대학교가 신학생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을음악회>를 9월 30일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했다. ©기독교일보

신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가을 음악회>가 지난 9월 30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백지영 총장(솔로몬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국민의례 후 김영석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회 부회장)의 기도, 이경심 목사(O.C. 여성목사회 회장)의 성경봉독, 윤순덕 박사(강남생수교회)의 설교, 김숙영 교수의 특송, 신용훈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회 부회장)의 헌금기도, 최학량 목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LA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백지영 총장은, "소명을 받아 신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해 기금 마련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부 가을음악회는 아나운서 김숙영 교수의 사회로, 백지영 총장의 환영사, 윤순덕 박사의 축사, 제임스 안(로스앤젤레스 한인회회장)의 축사, 이용태(민주평통 LA 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제임스 안 회장은 "솔로몬대학은 매년 정기 음악회를 통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인들에게 마음의 위로의 시간이 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태 회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악인들의 무대가 LA교민들의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음악회에는 테너 오위영이 <그리움 실은 파도>(이가인 사, 임금수 곡), <하나님의 사랑>(조은아 사, 신상우 곡)을, 소프라노 김영안이 <주의 은혜라>(순경민), 바리톤 장상근이 <마중>(허립 시, 윤학준 곡) 등을 불렀고, 이 외에도 소프라노 이영주, 테너 최원현, 소프라노 양유진 등이 출연했다.

이 음악회를 주최한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목사)는 코비드로 인한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가을음악회를 개최해 신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격려해 왔다. 토마스 맹 기자 솔로몬대학교: (323)708-9191, (213)381-7755

## "자유 민주주의의 위해 행동해야"



한미연합회(AKUS)가 지난 28일 월서 아로마센터에서 9·28 서울수복 73주년 AKUS 한미연합회 LA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 기독교일보

### 한미연합회 LA 창립 1주년 기념식

한미연합회(America-Korea United Society, AKUS)가 지난 28일 월서 아로마센터에서 9·28 서울수복 73주년 AKUS 한미연합회 LA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AKUS는 한미 양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번영 및 평화 확보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현재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조지아,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아틀란타 등 미 전역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AKUS 한미연합회 한국 회장 송대성 예비역 장군은 체제 전쟁 현황과 대책과 관련해 강연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수호되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망가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2022년에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교체됐다. 하지만 두 세력간에 싸움이 곳곳에서 있다. 이를 주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자들

이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기도를 한 최학량 삼일교문(AKUS 한미연합회 LA)은 "대한민국에 공산당 사상을 박멸시켜주소서.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확고히 서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다.

환영사를 한 AKUS 한미연합회 조직총괄 이병만 수석 부회장은 "AKUS가 한 돌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라며 "이 단체를 통해서 서로 희생하며 응원을 해서 애국 동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KUS 한미연합회 김영구 LA 회장은 "지난 7년 동안 태극기를 손에 들고 길거리에서 60여 차례 집회를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라면서 "LA에 많은 애국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젊은 일꾼이다. 조국 자유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이날 또한 탈북민 리정호(전 북한 39살 고위관료)가 안보강연을 했다. 토마스맹 기자

www.itsla.edu

#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플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리아도요 교수, D.Miss  
(플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한우리 교수, Ph.D.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 2024년 겨울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겨울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 및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itsla.edu/입학안내/>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겨울학기 접수기간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31일(화)
합격자 발표	2023년 11월 7일(화)

**■ 겨울 학기 일정(10주)**  
2024년 1월 2일(화) - 3월 8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http://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ITS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학생 후원자"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신학생을 지원하여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 故 임동선 목사의 신앙과 삶, 음악과 예술로 재탄생

“우리 시대 사도 바울처럼 사셨던  
故 임동선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을  
음악과 예술로 표현”

10월 21일(토) 7시 동양선교교회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고 임동선 목사의 영화 같은 일대기를 한 편의 영화처럼, 서사시처럼 담아낸 뜻깊은 공연이 펼쳐진다.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분은 우리가 볼만해야 할 멘토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오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1세대 다름바 없이 사셨다고 생각한다.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식에 한번도 온적이 없었다’고 막내 아드님 증거한 것같이 자녀들보다 복음이 우선이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 당시 5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면서도 무소유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사셨다.”

임동선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오페라틱 오라토리오의 총감독을 맡은 윤임상 교수가 이 공연을 앞두고 고인을 회고했다.

지난 9월 임동선 기념관을 개관한 월드미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 그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해 그의 생애를 창작 오페

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Jesus for All Nations)으로 재구성했다.

이 공연은 오는 10월 21일(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 공연의 예술 총감독 및 지휘를 맡은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는 이 공연이 임동선 목사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작곡과 극본은 송윤규, 연출은 클라라 신(극단시선대표)이 맡았고 임동선 목사 역에는 테너 최원현(뮤지컬 도산의 안창호 역), 황재순 사모역에는 소프라노 신선미, 영적 전쟁 역에 베이스 장주연, 이승만 대통령 역에 테너 오위영 목사가 맡았다. 또한 월드미션대학의 오케스트라 45명과 월드미션 합창단 및 LAKMA 합창단 50명이 함께 무대를 빛낸다.

오라토리오라는 연가나 대사 없이 순수하게 코랄이나 독창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성악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는 오페라에서 볼 수 있는 연가나 다양한 표현이 더해진다. 공연은 총 4개의 에피소드-에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고난 중에 기쁨(Joy in Hardship), 사랑의 헌신(Devotional Love), 소명의 실천(God's Calling)으로 구성되며, 12개의 창작곡을 선보인다.

송윤규 씨는 “하나님에 의지해 고난 속에



왼쪽부터 신선목 부총장, 최윤정 교수, 임성진 총장, 윤임상 교수, 클라라 신 감독, 테너 최원현 씨. ©월드미션대학 제공

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모험을 하신 임 목사님의 영화 같은 일대기를 한 편의 음악영화처럼, 서사시처럼, 거룩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내려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클라라 신 감독은 “이 공연을 통해 이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잊어버린 본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첫번째 에피소드에서는, 1923년부터 2016년까지, 임 목사의 유년시절부터 노년시절에 이르기까지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음악이 연주되며, 이어서 광복 직

후 남쪽에서 넘어온 스파이로 몰려 북한에 투옥되고 사형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과 영적 전쟁이 그려진다.

두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전쟁과 피난길, 넷째 형님인 임수열 전도사의 순교, 개혁과 부흥을 다루고, 세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군복 후 보상으로 받은 고난,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의 회개 촉구, 미국 유학이 묘사되며, 네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동양선교교회 창립 및 월드미션대학에 관한 내용이 다뤄진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주디 한 기자

# “이 모든 일, 무엇을 위한 일인가? 선교사 아닌, 미얀마 사람들 위한 것”

## 창립 50주년 맞은 세계선교교회 미얀마 선교사 초청 선교부흥회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세계선교교회(김창섭 목사)는 9월 29일(금)부터 10월 1일(주일)까지 미얀마 선교사를 초청해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선교부흥회를 개최했다.

12년째 미얀마를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는, 선교, 고아원 사역, 돼지은행 사업을 통해 미얀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둘째날 집회에서, 그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의 상황을 설명한 후,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부가 민주주의로 가는 발걸음을 다시 잡았다. 야간에도 통금이 유지되고 있다. 미얀마는 저녁 8시만 되면 길거리가 조용하다.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자기 맘에 안들면 총을 난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데에는 K-POP과 K-DRAMA에 힘 입은 바가 크다.

“집집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대학생들이 케이팝을 듣는다. 저도 모르는 한국 드라마를 본다. 미얀마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다 가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었다. 과거에는 자기 월급보다도 더 비싼 돈을 내고 폰을 살 수 없었다. 지금은 저렴한 스마트 폰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페이스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덧 미얀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세계선교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원용수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부흥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있으면, 미얀마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외모도, 언어도, 문화도 그들에게 동화됐다. 그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보다, 하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 보다는 불행한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가 하고 있는 돼지 은행 사역과 고아원 사역을 설명했다.

“돼지은행은 돼지를 구입해서, 새끼 암돼지 한 마리를 가난한 가정에 분양해 주고, 그 돼지가 자라나고 새끼를 낳을 때까지 필요한 것을 중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것을 확장해 마을 단위로 분양하면, 그 마을의 복음의 빚장을 여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분양한 돼지가 새끼를 낳으

면, 그 중의 암컷 두 마리를 돌려 받고, 그 두 마리를 다른 가정에 또 분양해 준다.”

그에 따르면, 새끼 돼지 한 마리 가격이면 47정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비용이 된다. “제가 돼지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지금은 계속 공부하면서 돼지 주사도 놓고, 돼지 목욕도 시키고, 돼지 한 마리가 나오다가 죽으면 나머지 돼지도 죽게 된다. 그러면 제가 손에 기름을 묻혀서 돼지를 꺼내야 한다”며 선교지 선교사의 삶을 생생하게 전했다.

“작은 돈을 하나 더 짓고 싶습니다라고 적어서 기도편지를 보냈다. 기도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기다렸다. 어느날 김창섭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첫 마디가,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저희가 오늘 당회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돼지 은행을 돕자고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열매를 제가 따 먹고 살고 있다”며 기도의 힘을 거듭 강조하며, 계속 기도해 줄 것을 간구했다.

드림 대신 냄비 뚜껑을 모아서 연주하는 학생의 사연을 기도편지에 적어 보냈을 땀을 때, 그 다음날 아침 드림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이 바로 채워졌다. 그는 미얀마로 가기 전 했던 기도, ‘고레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나누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을 다시 돌려 보낸다. 이런 일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게 해 달라고, 미얀마 선교를 가기 전에 계속 기도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돼지 축사를 짓기 위해 대충 대나무를 양옆에 세우고 거기에 천을 두르고 숙소로 지냈다. 그렇게 대나무와 천으로 지은, 양옆이 뽕 풀린 숙소에서 잠을 청하면 500 마리도 넘는 모기 떼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다. 땅을 파서 불을 피워 밥을 해먹으면서, 축사를 지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고레스 왕 같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돈사도 완공되고, 축산업 라이선스도 받았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던 네피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준비해 놓았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선교사인 저를 위한 것인가?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주디 한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러빙워십이 선택한 정면 돌파, LA & OC 메인 극장에서 복음을!

### 러빙워십과 제이어스가 최초로 시도하는 K-CCM 콘서트 메인스트림 최고의 극장에서!

“엘에이 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고 싶었다. 케이팝(K-Pop)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쓰고 아낌 없는 후원을 하는데, K-CCM 팀이 오면 교회에서 특송 부르듯이 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귀하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집회를 위해 우리가 아낌 없이 부어줄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12월에 LA 다운타운과 OC 애나하임 최고 수준의 극장에서 최초로 K-CCM 찬양집회가 열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장소를 찾는 것과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 그래서 러빙워십은 타협이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것이 러빙워십의 방식이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

러빙워십과 제이어스(J-US)의 연합 콘서트 “예수아(YESHUA)”가 12월 17일(주일)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노보 극장(Novo Theater by Microsoft)과 12월 22일과 23일 애나하임 내셔널 그로브 극장(Anaheim Grove National Theater)에서 열린다.

러빙워십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며, 정면 돌파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

###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아돌람의 기간을 거쳐

기독교일보에서는 지난 9월 22일(금) 세리토스에 있는 러빙워십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지금의 러빙워십이 있기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이 선교단체의 시작은 아돌람 공동체였다. 환난 당한 자, 빛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무 것도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모여,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긴 동굴의 기간을 거쳤다.

“눈물의 기도와 무릎 기도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아돌람 기간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것. 수없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으켜주셨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야 동이 트면서 계절이 바뀌더라.”

처음에는 기도 운동, 말씀 운동으로 골방에서 2009년에 시작되었다. 무엇을 하다가 보다는 삶이 힘든 분들 20-3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다 2016년 2월에 이 모임을 외부에 공개했고, 애나하임에 있는 Passion Bread of Life Christian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월요일을 선택한 것은 나머지 요일은 교회 모임이 있는데, 월요일은 모임이 없어서였다. 모임을 외부에 알린 지 2주일도 안 되어서 평균 2백 50명이 모여 기도했다. 집회에 사람들이 오면, 누구인지도,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지도 묻지 않았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가운데)와 스태프들. (왼쪽부터) 조애나 총무, 제인 리 간사, 이용주 선교사, 조셉 리 목사, 김낙영 간사, 정윤경 간사, 재키 정 간사, ©기독교일보

다. 그들이 은혜 받고 다시 자기로 교회로 돌아가도록 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선교단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다음은 러빙워십과의 만남.

### -러빙워십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조셉 리 목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이야기가 긴 것 같다. 영육 간에 모든 길이 막히는 삶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그런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과 가정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러빙 지저스’, 그 말씀을 주셔서 ‘러빙워십’이 된 것이다. 저희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인데, 저희 교단은 초교파, 말씀 중심의 보수 개혁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교단 ECA (Evangelical Church Alliance)에 속해 있다.

한국교회는 가난한 시절에 무슨 일이 있으면 3일이고 일주일이고 산으로 가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던 전통이 있다. 그 한국교회의 기도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예배뿐 아니라 삶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셨다. 저는 MBA과정을 전공해서 20대 때 그쪽에서 일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회사를 많이 만나게 하셨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대한 태도도 점검하게 하고, 그들을 멘토링하는 사역을 상당히 오래 했다. 지금 한 17년이 되었다. 그 회사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3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코비드로, 교회의 문이 닫히는 가슴 아픈 소식에, 러빙워십은 더 더욱 복음전파를 멈출 수 없었다. 더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감감한 어둠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 장비도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나갔다. 갖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것에 많은 이들

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딛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이제는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제법 괜찮은 시스템과 장비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그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 올해 제이어스와의 연합 집회로 이어졌다.



러빙워십 조셉리 목사. 그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독교일보

### 라라랜드 월드투어 음향 감독, 마이클 잭슨 등 팝가수 공연 전문 조명 감독 참여

조애나 간사: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향감독, 조명감독도 붙여주셨다. 음향은 <라라랜드> 월드투어 뮤지컬에서 음향 감독으로 활동하신 Troy Choi(최경태) 감독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다. 또 유명 팝 가수들 콘서트를 맡아서 한 유명한 조명 감독도 연결되었다. 마이클 잭슨을 친구처럼 얘기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다.

### -콘서트의 진행 및 구성에 대해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작품상"  
2014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대상" 인기상, 특별상 등 전 부문 석권  
2015년 대한민국회대상 "올해의 연극상"  
15년간 전국 60여개 도시 1,800여회 공연 100만 관객 관람



#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명품연극 특별공연!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매진임박!**



이 세상 모든 아들딸들의 참회록,

예술감독  
임하리

작/연출  
김용을

총괄  
프로듀서  
이광진

# 동치미

엄마,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프로듀서  
석송  
대니 석  
이진영  
유한수  
최순구  
제니 리

출연 김진태 김계선 이효운 안재완 안수현  
관람권(Ticket) S석 \$80.00 A석 \$50.00

2023.10.27(금) 오후 6시 **월셔이벨극장**  
Wilshire Ebell Theatre

센터메디컬그룹에서 시니어분들께 **티켓을 선물**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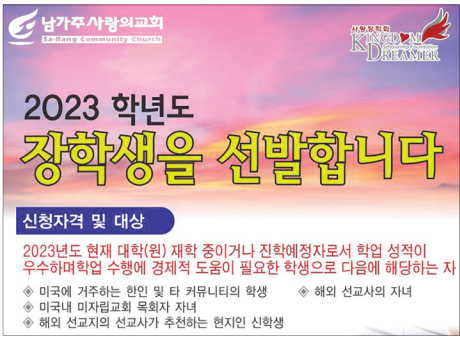
신청 문의 : **(714) 800-3168** 전화

\* 문의는 평일 오전 8:30 ~ 오후 17:30 동안 가능합니다.



### 사랑장학회 제17기 장학생 모집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0명 이상에게 2천 불씩



남가주 사랑의교회 산하 사랑장학회 (후원회장 이교식, 이사장 노창수 담임목사)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도 제 17기 사랑장학생을 모집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세대 리더들을 위하여, 100여 명 이상 학생들에게 일인당 2천불씩 장학금을 지불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도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자로서, 학업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및 타 커뮤니티 학생 ◆해외선교사 자녀 ◆미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신학생, 학업 성적보다는 좋은 인성, 미래지향적 비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남가주뿐만 아니라 타주 학생들도 지원가능하다. 기록교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랑장학회는 차세대 리더 양성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하여 2007년 설립되어 매년 100명~15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일인당 2천불씩 장학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16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290만 여불을 지급했다. 또한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전세계 한인 선교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노창수 목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사랑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랑장학회가 차세대 리더 양성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더 많은 장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재현 담당장로는 “사랑장학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온라인 지원 및 심사, 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지원자 및 합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지원부터 장학금 수여 및 온라인 계좌 정보 처리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사랑장학회는 10월 1일에 ‘후원인 감사의 밤’을 열고, 후원인들을 초대해, 사랑장학회를 소개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지원서 및 지원서류는 www.kdsfsarang.com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하며,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17일(주일)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사랑장학회 email kdsf.sarang@gmail.com 전화번호 : 714-772-7777

##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의 기술을 펼칠 터”

“도움을 베풀기 위해 간 의료선교,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을 때 많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행동은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다. 그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를 다 씻겨 주소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씻기신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것을 본으로 삼고 이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 ◆ 아버지 등 뒤에서 섬김의 삶 배워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된 올림픽치과 에스더 리 원장.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등학생 딸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 섬김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교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원래 치과 기공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주위의 권유로 Loma Linda University 에 가서 의사가 되어서 어렸을때 가졌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 함께 의료선교사로 동참해 캄보디아, 중국, 멕시코에 찾아가 현지인들을 치료해 주고 복음을 전했다.

“의료 선교를 갈 때마다 많은 보람이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첫 발을 떼지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얻어오는 것이 많았어요. 의사 친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주어서 큰 힘이 되었고요. 지금은 주로 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선교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 못한다면 여기서 도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환자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은 주로 손이나 목이 고통이 있음을 호소한다. 그래서 그는 주로 진



올림픽치과 에스더 리 원장. 그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봉사를 시작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고 고백한다.

료하지 않는 날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 ◆ 힘에 부칠 때 성경필사를 하면서 마음이 평안 얻어

그래서 간증 프로그램과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은혜와 힘을 얻으려고 한다. “요즘에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면서 집중이 되고, 직접 손으로 쓰니까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올림픽치과에는 주로 은퇴하신 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리고 주위 교회 사역자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전임자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치과를 운영했기 때문이란다. 에스더 원장은 올해 여름에 치과 경영을 이어받으면서 메디칼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5세 이후의 아이들도 진료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의 진료 철학은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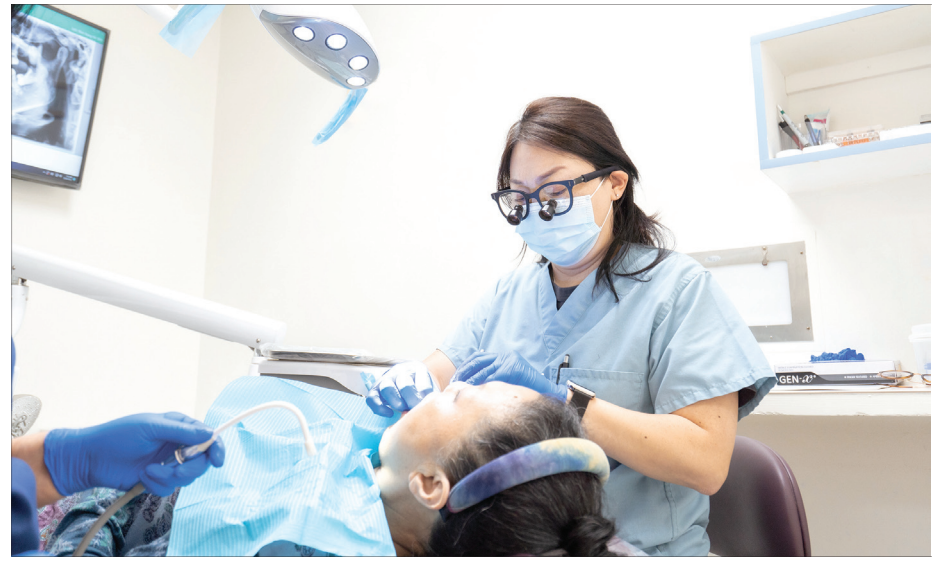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여기 오기 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진료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섬세하게 보려고 해요. 환자들이 진료에 만족하면 감사하고, 찾아오는 보람이 큰 것 같아요”

#### ◆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

올림픽치과는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3D 디지털 임플란트 장비를 갖추고 있다. 3D 디지털 임플란트는 3차원(3D) 컴퓨터 단층촬영(CT)과 구강스캐너로 환자의 구강을 촬영한 뒤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해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경로를 찾는다. 임플란트 시술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잇몸 절개도 적고 출혈이 많지 않다. 그만큼 통증도 완화되고 회복도 빠르다. 병원 관계자는 “잇몸 절개를 최소화해 회복이 빠른 뿐 아니라 환자 특성에 맞게 시술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올림픽치과는 일반 치과 진료를 포함해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인터뷰를 하면서 치과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인듯, 에스더 원장은 동생이 다니는 교회의 탈북자들도 도와드리고 싶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을 위해 섬기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지난 1996년도에 4년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살았는데 이번에 다시 오게 되면서 여기 한인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텐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토마스 맹 기자 올림픽 치과: 213-385-4011 주소: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요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이너비스의 약속**

- ✓ 믿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제품입니다.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 ✓ 제3자 실험실 테스트로 라벨 내용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 F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구매 방법**

**기독샵**

전화구매: 213-434-1170  
현장구매: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이너비스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최신 기술과 최첨단 제조 장비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제조된 우수한 제품을 통해, 인류사회에 건강과 행복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믿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p><b>1 물 없이 씹어먹는 애플 사이드 비네거</b></p> <p>60 츠어블 타블렛 \$13.99</p> <p>애플 사이드 식초와 유산균 및 여러 종류의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체중 감량, 해독, 콜레스테롤 저하, 소화 불량 예방, 에너지 증진,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합니다.</p>	<p><b>2 물 없이 씹어먹는 간 회복제</b></p> <p>60 캔디 타블렛 \$16.99</p> <p>간 건강에 가장 좋은 조합인 밀크씨슬과 강황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모링가 및 다양한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간 건강, 소화력, 독소 제거, 숙취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p>	<p><b>3 에너지 &amp; 무드</b></p> <p>60 캡슐 \$9.00</p> <p>에너지와 건강한 기분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인 마그네슘, 비타민 C, 마카, 아슈와간다, 루마리 푸아마로 만들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p>
<p><b>4 목 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b></p> <p>120 베지터블 캡슐 \$9.99</p> <p>탈모 예방과 피부질환 개선 및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p>	<p><b>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b></p> <p>120 베지터블 캡슐 \$8.80</p> <p>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p>	<p><b>6 비타민 C500</b></p> <p>180 베지터블 캡슐 \$11.99</p> <p>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 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p>
<p><b>7 물 없이 씹어먹는 비타민 C 츠어블 500mg</b></p> <p>120 츠어블 타블렛 \$14.75</p> <p>쉽고 빠르게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B2, B6가 함께 들어있어 육체 피로와 면역력을 개선해 주며, 기미와 주근개 예방에 좋습니다.</p>	<p><b>8 엠에스엠 2,000mg</b></p> <p>150 타블렛 \$10.99</p> <p>활력있는 생활로 돌아가세요! MSM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 피부 노화 방지, 상처 치유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p>	<p><b>9 면역력</b></p> <p>120 타블렛 \$11.99</p> <p>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 기반부터 끌어올려 줍니다.</p>
<p><b>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b></p> <p>120 베지터블 캡슐 \$19.99</p> <p>한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함량의 살리마린(밀크씨슬)을 포함하였으며, 결종된 비타민, 마네틴으로 제조하여 간 건강을 위한 에너지 피로까지 회복시켜 주는 탁월한 제품입니다.</p>	<p><b>11 프리미엄 혈액순환</b></p> <p>150 캡슐 \$19.99</p> <p>검증된 다양한 비타민, 아연, 니아신,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p>	<p><b>12 타우린 500 플러스</b></p> <p>180 캡슐 \$14.99</p> <p>신경세포와 신경계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심장, 두뇌 등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C와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 항염으로 6개월간 복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p>
		<p><b>13 피쉬 오일</b></p> <p>120 소프트젤 \$13.75</p> <p>높은 품질의 피쉬 오일을 사용하였으며, 다량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과 심혈관, 눈의 광학의 중요 요소로 사용된다. 또한 만성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p>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온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차세대)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7)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헌정성예배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여중/남(AN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초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초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리타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과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213) 272-603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예배 오후 11:00  
EM예배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gmc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kum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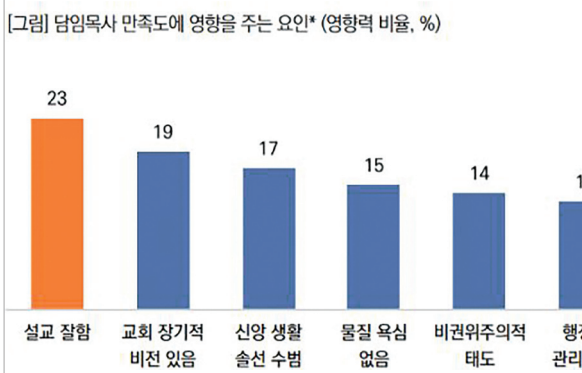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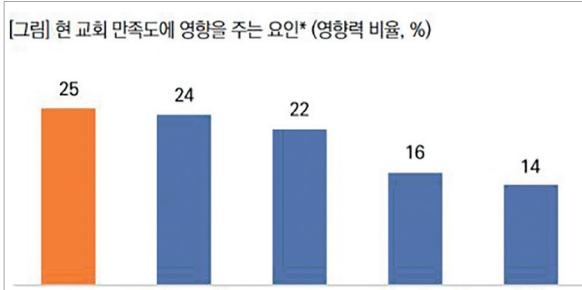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줄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 주는 요인 2위 '비전' ... 1위는?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교와 비전 등이 꼽혔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얼마 전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의 주요 결과를 26일 소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천 명과 비개신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목협의 올해 조사는 1998년, 2004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 교회와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교'가 23%로 1위였고, 이어 '교회의 장기적 비전' 19%, '신앙생활 솔선수범' 17%, '물질 욕심 없음' 15%, '비권위주의적 태도' 14%, '행정적 관리' 13% 순이었다. 현 출석교회 만족도에는 '교회 사역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가 25%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 24%,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 22%,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와 예배의 영성' 16%, '지역사회 봉사/공적 역할' 이 차례로

영향을 미쳤다. 연구소는 "종합해 보면 '평신도의 참여'와 '설교'뿐 아니라 '교회 비전과 인품'을 갖춘 목회자를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만족도 질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코로나 기간 소위 '가나안 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나안 성도에게 교회 비출석 이유를 묻은 결과, '업메이거 싫어서'가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코로나19 때문에'가 1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문에'가 보기로 제시된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인데, 이 요인이 전체 2번째로 응답된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가나안 성도 급증에 코로나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기독교 쇠퇴 맞서기 위해 건강한 결혼과 아버지 지위 회복 필요

### 아버지와 친밀할수록, 부모와 동일한 신앙 가질 확률 높아 미국 성인 50% 외로움 느껴

미국의 한 신앙 기반 단체가 "교회는 점점 커지는 기독교 쇠퇴에 맞서기 위해 건강한 결혼생활과 부성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결혼 생활과 관계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코뮤니오(Communio)의 창립자 J.P. 드 캔스 회장은 최근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신앙과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대화에는 헤리티지 재단의 '리처드 앤 헬렌 드보스 센터' 생명, 종교 및 가족센터 연구원인 들라노 스카이어즈도 참여했다. 생명, 종교 및 가족 드보스 센터 소장인 제이 W.리처즈가 사회자로 나섰다. 드 캔스 회장은 연설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 내에서 아버지의 지위가 하락하고 결혼이 붕괴된 것이 미국 전역에서 무종교인이 증가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13개 주에 걸쳐 112개 교회 참석자 1만9천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교파도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 교회 참석자의 80%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회를 출석하는 25~29세의 미혼 남성 중 87%는 결혼한 부모를 두고 있었다.

드 캔스 회장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는 이들은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이들보다 집에 상주하는 아버지와 함께 성장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회 신자 5명 중 1명은 결혼한 부모 없이 자랐다. 그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일 오전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드 캔스 회장은 비

종교적 성향의 성장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종교 성향이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90년대 중반에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드 캔스 회장은 신앙과 관계 연구에서 참조된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의 종단적 연구를 인용하면서 "결혼한 아버지가 지금은 누락된 요소"라고 주장했다. 종단적 연구는 40년 동안 성인 3천명과 350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드 캔스 회장은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결과 중 하나는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 성인이 부모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25% 포인트 더 높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는 성인이 부모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 캔스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30명을 분석한 심리학자 폴 비츠의 저서인 '아버지 없는 자들의 믿음: 무신론의 심리학'(Faith of the Fatherless: The Psychology of Atheism)을 참조했다. 드 캔스 회장에 따르면 책 전체에 부재중인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에 대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결혼에 대한 성경의 암시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정보를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라며 "하나님께서 신성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비유는 배우자 사랑 이야기죠?"라고 물었다.

그는 "따라서 근본적으로 신앙의 갱신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은 결혼의 갱신을 불 필요가 있다"라며 "기독교적 결혼이 그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가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앙과 관계 조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 성인의 50%가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교회 신자의 22%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독신 교인들은 기혼 신자(15%)에 비해 외롭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 이미경 기자



# 전미학생기도운동, 연례 대회 개최... “Z세대에 남은 자들 있어”

전미 학생 기도 운동 사역 단체인 ‘씨 유엣더폴(See You at the Pole, SYATP)’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연례 행사를 열어 Z세대에게 다가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매년 9월 넷째 주 수요일에 학교 국기 게양대 주변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행사로,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은 물론, 성인들도 직장, 교회 또는 기타 장소에서 초대되어 기도할 수 있다. 올해 34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작년에는 ‘불타오르라(A flame)’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11~12절을 본문으로 했다.

SYATP와 관련된 ‘전국청소년사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Youth Ministries, NNYM)’의 전국 현장 책임자인 더그 클라크는 CP와 인터뷰에서 올해 성구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클라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구를 인용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를 꼽는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다”며 장 후반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13절을 11절의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 하신 약속의 조건”이라고 전제했다.

클라크는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있는가? 따라서 올해 주제는 ‘온 마음을 다해

(wholehearted)’이다. 학생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다”며 “구약의 예언 중 가장 압도하는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보살피신다는 희망이 항상 있다. Z세대에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 기도 운동의 시작은 텍사스의 한 청소년 단체가 그들 안에 유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느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생들은 모든 학교의 국기 게양대 옆에서 기도회를 여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1990년 9월 12일, 첫 번째 SYATP 행사에는 미국 전역에서 4만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기도에 참여했다. 이후 이 단체는 NNYM 팀에 도움을 요청했고, 매년 학생 10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크게 성장했다.

클라크에 따르면, 이 기도 운동은 캠퍼스 내 기독교 단체 학생들이 행사를 계획하여 주도하고 있다. SYATP 웹사이트는 기도 행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이트는 기도 운동이 “수업 시간 외에 진행되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클라크는 “올해와 작년에 자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기도 운동에 추진력이 쌓이고 있다. 청소년 단체, 다양한 교단, 유스포크 리스트(Youth for Christ)와 같은 조직이 이 행사에 대한 전파를 돕고 있다”며 “50개 주 전역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美 성인 2인 가구 복음주의자 중 65%, 부부가 함께 기부”



©Pixabay

미국의 성인 2인 가구에 거주하는 복음주의자들은 부부로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갑을 통제하는 사람: 복음주의자들의 기부 결정’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그레이 매터 리서치 앤 컨설팅(Gray Matter Research & Consulting)과 인피니티 컨셉츠(Infinity Concepts)에서 수행했다. 이 결과는 2023년 복음주의의 개신교인 1천10명의 응답을 기반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이 두 명인 가정에 거주하는 복음주의자 중 90%가 최근 12개월 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두 명인 복음주의 가정의 90% 중 65%는 부부가 함께 모든 헌금을 한다. 또 다른 17%는 대부분의 기부를 함께 하지만 일부 기부는 별도로 하고, 6%는 일부 기부를 함께 하지만 대부분은 별도로 기부한다. 약 12%의 부부는 두 개의 독립된 단위로 운영하며 별도의 결정을 내린다.

그레이 매터 리서치 론 셀러스 사장은 성경을 통해 “안토니오와 엘리스 실바가 보낸 금액은 안토니오와 엘리스 모두가 기부한 것이고, ‘리처드 크레이그’가 보낸 금액은 오직 리처드만 기부한 것이라고 조치가 가정하기 쉽다”라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했다.

셀러스 사장은 “리처드가 실제 지급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와 그의 아내

가 어디에 기부할지 신중히 논의하고 공동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엘리스는 사역에 열정을 갖고 공동 계좌에서 기부하기로 결정을 내리지만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조직에는 거의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선단체에 별도로 기부하는 복음주의 가정에서는 다수(45%)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그러한 가구 중 14%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선 활동에 조금 더 기부하는 반면, 여성은 18%의 경우 “훨씬 더 많이” 기부했다.

반면, 가정의 남성이 “조금 더 기부”하는 경우는 10%이며, 2인 복음주의 가구 중 14%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기부했다.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결정할 때, 공동으로 기부하는 복음주의 가정 부부 중 52%는 두 파트너가 자금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결정할 때, 공동으로 기부하는 복음주의 가정 부부 중 52%는 두 파트너가 자금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은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22%의 경우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반면, 여성은 26%의 경우 그러한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발리예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OC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일 오전 6:00(월-토)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월-토 7: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매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중)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강림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관리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6.25 전쟁과 북한 교회 하

1950년 10월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수복 후에는 북진을 거듭하여 평양을 비롯한 이북의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함으로써 그 지역 교회들도 다시 자유로운 신앙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감격과 기쁨도 잠시, 1950년 11월 26일에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시작함으로 이북의 온 교회들을 다시 불안하였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다.

이 당시에 평양 '서문밖교회'에서는 연합부흥회가 개최되었는데, 부흥 강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망치듯 군대와 함께 평양을 떠났다. 이에 교인들은 크게 낙담하였다. 그날의 집회에는 통성기도로만 진행되었다. 통성기도가 점차 통곡의 기도로 변하다가 울음 바다로 변했다. 중공군이 참전하여 전세가 역전된 소식을 전혀 몰랐던 저들은 왜 강사 목사들이 나타나났는지를 몰랐던 것이고, 미군과 함께 올라왔던 목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군대와 함께 다시 남으로 내려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북 지역에 남아있었던 대다수의 교역자들은 전세에 대해 낙관적인 판단을 하였다. "설마 유엔군이 평양을 버리랴?"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다. 이때 피난길에 오르지 않은 주민들과 교인들은 다시금 크나큰 전쟁의 불길 속에 갇히게 되었다. 유엔군은 다시 평양 시가지에 폭격을 맞아 파괴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과 평양 시민들은 피난길에 올랐으며 이때 유엔군이나 국군을 따라 남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 치하에서 살아 보았기에 다시 그런 공포스런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의 인민군은 10월에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하자 전세에 밀리게 되어 퇴각하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 학살을 하고 평양을 떠났었다. 그 중에는 평양 신학교 이성휘 목사, 평양남문교회 이학봉 목사, 조만식 장로, 김익두 목사 등과 지난날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여 김일성 정권에 힘을 보태주었던 목회자들까지도 처형하였다. 김일성 군대는 이들에 대한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목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사들을 창고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 끔찍한 살육을 자행했다. 이는 1919년 만세 운동 때에 일제 경찰이 제암리의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 집합시켜 놓고 불을 질러 살해한 끔찍한 만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동족임에도 잔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강원도 원산에서도 그 같은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1950년 10월 10일에 기독교인 500여 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산 채로 생매장하였다. 이처럼 북한 공산 정권은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목회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잔혹하게 처형함으로써 그들은 기록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이는 6.25 전쟁 중에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가장 큰 규모의 불행한 참사였고 희생이었다. 이러한 전쟁 중에 국군과 유엔군이 이북 지역의 인민군을 몰아내고 회복했던 때는 잠시였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방으로 퇴군할 때에 이북 곳곳에서 군인들과 같이 남하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1950년 11월 25일에 유엔군과 국군은 압록강 지역과 함경도 함흥 북단까지 진격을 했다.

그곳을 유엔군이 점령하자 기독교인들은 미군 군목으로 참전한 해롤드 보켈(Harold Voekel) 선교사를 만나 그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당신 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을 당신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함흥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교회 지도자는 "주여! 우리를 압박에서 구해 줄 모세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보켈 선교사가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에 교인들은 그를 보자 "모세가 왔다!"라고 소리쳤다. 얼마 후 그들은 유엔군의 도움으로 함경남도 흥남포에서 철수할 때에 함께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 강태광의 기독교 고전 산책



순교자 폴리갑의 순교록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이그나티우스가 떠난 2세기 교회의 결출한 지도자였다. 그가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2세기 교회에 대체 불가한 기독교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황제를 신봉하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 그의 사형은 2세기 교회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

폴리갑의 순교는 당시 교회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었던 필로멜리움 교회가 서머나 교회로 폴리갑 순교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이 요청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서 쓴 것이 <폴리갑의 순교록>이다. 이 순교록은 서머나 교회에서 기록하여 필로멜리움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 순교록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람된 문서였다.

<폴리갑의 순교록>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이 순교록은 순교 상황을 보고하는 최초의 기독교 자료로 순교자 보고에 관한 새로운 문학 유형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순교록은 2세기 교회 상황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로, 폴리갑의 행적을 통해 당시 성도와 교회를 설명해 준다.

또한, 이 순교록이 서신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신의 역사는 문자의 역사와 거의 같다. 고대에는 국가간 소통 수단으로 서신이 활용되었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고대사에서 서신이 자주 등장했다.

헬라시대에는 철학자들이 로마 시대에는 인문학자들(키케로나 세네카)이 편지로 자신의 사상을 전했고, 편지로 후원자들 혹은 제자들과 소통하였다.

서신은 바울을 포함한 신약성경 기자들이 애용한 방식이다. 바울 외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신약 기자들이 서신을 사용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엄밀히 보면 신약성경 전체가 서신 형태로 기록된 문서다.

신약성경 이후 기독교 문서들도 주로 서신 형태다.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 감독도 7개의 서신을 남겼다. 신약성경 다음으로 오래된 초대교회 문서로 알려지는 <클레멘스의 제1 서신>도 서신이고, 2세기 무명 교부의 신앙 해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집으로 알려지는 <디오그네투스에게>도 서신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순교록은 폴리갑 순교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다. 자신을 마르키온이라고 소개하는 필자는 자신이 폴리갑 죽음의 목격자라고 소개한다. 아울러 마르키온은 폴리갑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이 '복음에 일치된 순교'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는 로마법은 로마 황제만이 주(Lord)가 될 수 있었고, 나사렛 예수를 주라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면 행정 장관이 선택하는 사형방법에 따라 처형되었다. 로마 정부는 종종 원형 극장에서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잔인하게 처형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폴리갑은 자신의 신조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처형을 당했다.

<폴리갑의 순교록>은 폴리갑의 순교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순교가 갖는 가치를 소개한다. 이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그리스도 죽음의 모방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친교요 일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다.

폴리갑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증언되었으며 후대 교부들이 인용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순교 이야기로 유통되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지도자들의 이름을 사용한 문서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크리소스톰의 이름으로 발행된 <폴리갑의 찬가>나 피오니우스 이름으로 남겨진 <폴리갑의 생애> 등이 있다.

<폴리갑의 순교록>은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순교 신앙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서신은 서론과 맺음말 그리고 23

장 56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성수 박사는 21장, 22장, 그리고 23장을 부록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교부학자들은 23장만을 모스크바 필사본의 맺음말로 처리하며 부록으로 간주한다.

<폴리갑 순교록>을 거칠게 요약, 정리하면 머리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자 폴리갑(1장~4장), 담대한 신앙의 사람 폴리갑(5장~18장), 폴리갑 순교가 주는 메시지(19장~20장) 그리고 순교에 대한 정보(날짜, 로마 관계자 등)와 권면(22장~2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리갑의 순교록>은 신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썼다. 저자는 거의 노골적으로 폴리갑의 순교를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사건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폴리갑의 체포, 수난, 죽음의 과정이 예수님의 과정과 동일하다. 심지어 예수님을 심문한 사람이 헤롯(안디바)였는데, 폴리갑을 체포한 인물(경찰서장)의 이름이 헤롯이었다.

<폴리갑의 순교록>은 순교자를 순교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폴리갑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폴리갑을 본받아야 한다. 폴리갑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성도였다면 '자발적인 순교'를 강요하는 자(4장)나 순교를 거부하는 자(4장), 그리고 순교를 위해 스스로 나서는 자(4장)는 옳은 성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폴리갑은 자신을 찾는 수색망이 좁혀져 올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기도 생활을 했고(5장), 자기 은거지가 발각되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 나갔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서장 헤롯과 그 일행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요청하여 은혜 충만한 두 시간의 기도를 드리고 체포되었다.

순교록에 기록된 폴리갑 기도는 중요하다. 순교록 8장은 폴리갑이 체포되기 직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는 체포된 후 온갖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사형틀에 묶였다. 사형틀에 묶인 그가 드린 마지막 기도(14장)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기도였다. 이 기도는 십자가상 주님의 기도를 닮았다. 순교자 폴리갑은 철저히 주를 닮았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달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대학(ABHE), 목회대학(M.Div.)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ACSI, SACS 인증
온라인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학부 | 신학, 사역학사,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 석사
목회학,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15605 Carner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 제 2 회 WE BRIDGE CONFERENCE

##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과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We Bridge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SCAN ME!

### MAIN SPEAKER



**저녁 연합집회 설교**  
김영길 목사 (TMF 대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개회 예배**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폐회 예배**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 SEMINAR SPEAKERS & PRAISE



**"성경 중심 소그룹목회"**  
유경재 목사  
나성북부교회 담임  
총신 신학대학원 M.DIV.



**"말씀에 능력을 붙여넣는 내러티브 설교"**  
김귀보 목사  
달라스 크나목교회 담임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전도는 기쁨이다"**  
유성국 목사  
GOSPEL TO ALL 전도센터  
부에나파크 뉴라이프 선교교회(96~16)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유수연 사모  
CA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  
GATEWAY ACADEMY 대표



**"신천지 강의"**  
김형철 목사  
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살롬김 박사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플라신학대학원 Ph.D



**집회 예배 찬양**  
원하트 미니스트리

**날짜 : 2023년 11월 6일(월) ~ 8일(수)**

**장소 : 감사한인교회**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등록마감일: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선착순 마감(등록비 없음)**

☎ 213.739.0403 ✉ [webridgeinfo@gmail.com](mailto:webridgeinfo@gmail.com)

기획 : Oneheart Ministry    주관 : 기독일보, ING    후원 : We Bridge 후원 교회, 감사한인교회, 달라스 크나목교회





강준민 칼럼

# 서두르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조급함에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릅니다. 조급합니다. 잠언이 가르쳐 주는 지혜는 조급함에 대한 경계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 21:5).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잠 14:29).

어느 정도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부 포이만은 “모든 지나침은 사탄에게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침은 과속(過速)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속도는 탈선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친 속도는 정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지나친 속도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지나친 속도는 귀를 멀게 만듭니다. 지나친 속도는 멈출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이해하다.”는 말의 영어는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다”는 아래(under)와 서다(stand)의 합성어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부터 살펴듯이 문제의 원인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세를 낮추면 잘 보입니다. 자세를 낮추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불안함은 조급함을 낳고, 서두름은 삶을 망치고, 우리 영혼을 텅비게 해 사랑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십시오**

사람은 불안하면 더욱 속도를 냅니다. 불안은 가속의 태엽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나쁜 방향으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삶의 지혜는 인내에 있습니다.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배우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은 고요함 중에 탄생합니다. 기다리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하면 맑아집니다. 고요하면 밝아집니다. 고요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요 15:2). 집중하면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풍성한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인내하는 사람만이 익은 곡식을 수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내하는 동안에 곡식은 자랍니다. 서두르면

초조해집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안셀름 그윈은 “우리는 미친 듯이 서두르면서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있다. 서두름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서두름은 늘 영혼을 텅 비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라고 권면하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축적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이 탁월합니다. 예견력이 탁월합니다.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고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압니다.

몸이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서둘러 응급실로 가십시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속도를 늦추십시오. 소중한 것은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고전 13:4). 서둘러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줄이십시오. 맛을 음미하듯이 삶을 음미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길들을 따라가십시오. 서두르지 않는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 습관과의 싸움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습관이 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5%는 결정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 처럼 습관은 우리에게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에 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물론 습관은 쉽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습관이 재능

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서 쉬지 않고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에 힘쓰기도 한다. 그렇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내는 자투리 시간도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이 된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습관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나 자신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일생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고대 기독교 사상가중 으뜸으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생활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그 몸에 거룩한 습관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는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적성숙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행동의 45%는 결정이 아닌 습관으로부터, 새들백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습관의 형성**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별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쁜 가운데 새벽 이른 시간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셨다. 무엇보다 이러한 습관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거룩한 영성과 신앙의 습관은 깊은 연관

성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찰스 두히그(Charles Duhigg)가 쓴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책에는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다. 이 인터뷰에서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우리의 습관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신앙은 한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연속에서 세워지게 된다.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 19과의 긴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습관들이 신앙에 열정과 참 믿음을 있게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이제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다듬어 나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수련원 우송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비상응급 서비스 전문 센터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채반 오반떡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Not I But Christ의 믿음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소'보다 더 변방인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처럼 로마 시민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식민지에서 수탈당하며 힘없이 살아가는 작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크기나 화려함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였던 짐 베이커 목사는 미국 교회 성공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고, 거기서 '나는 잘못되었다(I Was Wrong)'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천 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력도, 하늘의 도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다. 유혹이 왔을 때, 반격할 아무런 무기가 없었다."**  
미국 교회 성공의 아이콘이던 짐 베이커 목사의 《나는 잘못되었다》 중

짐 베이커 목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크고 화려한 성공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Social Media를 보면 그저 멋있고 화려하게 꾸미고는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누릴 것, 믿을 것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말세를 이기는 능력이요 구세주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계3:17)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는데, 그 특징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계3:8) 하나님께는 외적인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믿음, 주님과 동행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려면, 상황과 조건 바꾸려고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순종하는 'Not I, But Christ!'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Not I, But Christ!'의 믿음을 선택하면 가속이 붙어서 내일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To God be the Glory"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도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한 문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료와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그가 만년필로 직접 쓴 몇 개의 기도문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한 문장은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 영문으로 쓴 기도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비록 자신이 정성을 다해 환자를 수술하고 돌보지만 '나의 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모든 회복이 가능합니다'라는 신념을 갖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무지의 고백을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놀랄 뿐이며, 우리의 찬송가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To God be the Glory)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곡은 19세기 미국의 3차 부흥 운동 시기에 가장 많은 찬송을 썼던 페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 여사의 찬송 중 가장 대표되는 영광 찬송가입니다. 1872년 페니 여사가 곡을 썼고 윌리엄 하워드 도안(William Howard Doane, 1832-1915)이 작곡하여 1875년에 "Brightest and Best"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 사이 1873-1874년에 영국에서 전개된 무디 전도집회에 아이라

생키(Ira D. Sankey, 1840-1908)가 이 곡을 소개하여 영국에서 많이 찬양되었고 정작 북미 지역에서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1954년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에서 클립 바로우스(Cliff Barrows)가 처음 사용하면서 이 곡이 미국 내 각 교단들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여사는 갈1:4-5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찌어다 아멘"을 본문으로 삼아 그 분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가사로 만든 영광의 찬양입니다.

일 절에서 '구원의 생명문을 열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생을 얻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어 두 번째 절에서 자신의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범죄자와 같이 그 누구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세 번째 절에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한 위대한 하나

님 사람이었습니다. 주석중 교수 또한 그의 기도문을 보면 자신의 노력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움직였을 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성자요, 영성 철학자들인 디오니시우스(Dionysius Exiguus, 470-544)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354-450), 쿠사의 니콜라우스(Nicolaus of Cusa, 1401-1464) 등은 "마침내 무지를 배우려면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나 주석중 교수가 동일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무지함의 고백은 그들 분야에서 많은 전문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며 결국에서 알게 된 그들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은혜로 비추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그것이 절대 값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더 열심히 갈고닦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한국에서 한 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돼 한국 사회를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대동맥 박리수술 명의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1962-2023)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내 모든 국민을 울릴 만큼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주 교수의 대동맥 박리수술 성공률은 97.8%를 기록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이에 동료 의료진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고 높게 평가해 왔다고 합니다. 국제 급성 대동맥박리 학회가 발표한 대동맥 수술 평균 성공률이 80~85%인 것을 고려할 때 주 교수의 수술은 세계적 수준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공률로서 그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주 교수께서 그런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평가되었던 것이 그리 놀랍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주최: 기독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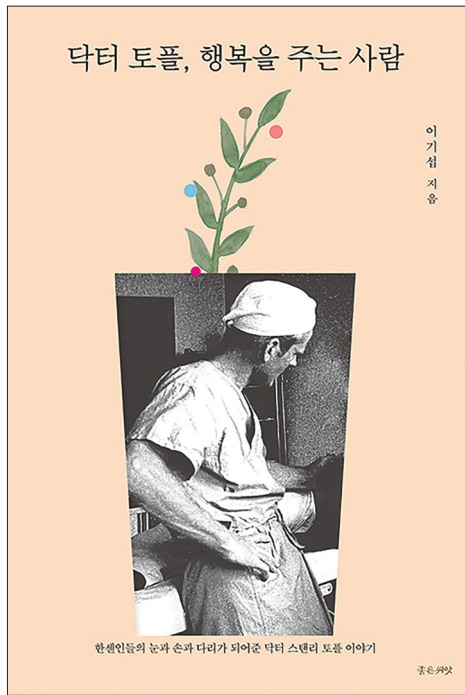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손 내미는 삶, 행복한 삶]

#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릴 것이다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기섭 | 좋은씨앗  
 | 272쪽  
 16,000원

한국 이름 도성래. 전쟁 직후 한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센병 치료와 질병 연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썼다. 치료를 넘어선 헌신과 사랑, 국적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 진실된 마음이 선한 발자취가 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뿐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용기가 조금 더 자라길 기대합니다.  
 -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

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들에게, 토플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성경의 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유대인들은 부정할 것을 만질 수 없었다. 특별히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할 자로 백성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했고, 성 밖에 나가 기적적으로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 아니라 그 손을 “그에게 대시”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내 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셨다.

그 ‘동정, 긍휼’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마음에서 필히 발견돼야 한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승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그 소명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한다. 쉽게 말해 우리도 손을 내밀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삶을 만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귀한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랑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작가 이기섭은 “신앙적·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을 취재해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 소명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실제로 그 소명을 이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다. 그가 쓴 <그 청년 바보의사>와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 그리고 이번에 쓴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인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감동과 교훈을 파도처럼 끊임없이 제공한다.

독자는 책을 펼치는 순간 1959년의 전라도, 푸른 눈의 젊은 청년 닥터 토플을 만나 그의 말과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접할 수 있다. 의료 선교나 구제 선교는 잘못하면 복음이 아니라 번영에 굶주린 이들을 잔뜩 불러들일 위험이 다분하다. 예수님도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빵을 구하거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일부러 피하셨다.

닥터 토플의 삶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그가 행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료 행위, 그 헌신과 봉사과 섬김의 삶이 복음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복음은 그의 하루를 시작하고 진료를 시작하는 힘이였다. 복음은 그가 끝까지 성실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게 한 동기였다. 복음은 심지어 환자들이 나병을 전염병이 아니라 천혜병이라고 부르게 만든 강력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또 복음은 토플이 의료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빛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 그는 검소했고, 인격적이었고, 희생

적이었으며,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일반인과 공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나아가 완치된 환자가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가르쳐 주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까지 나아갔다. 복음의 능력은 토플과 함께 수많은 동역자를 불러 모으는 힘이 되기도 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 삶을 기꺼이 드린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많은 증인이 있었다. 우리는 받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었다.

이 책이 쓰여진 지금, 토플 부부는 20년의 한국 의료 선교를 마치고 이후 10년의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끝낸 후, 은퇴하여 지역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손을 내밀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만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외 선교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회 인도자로 소명을 얻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은사도 받았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른 지체와 이웃을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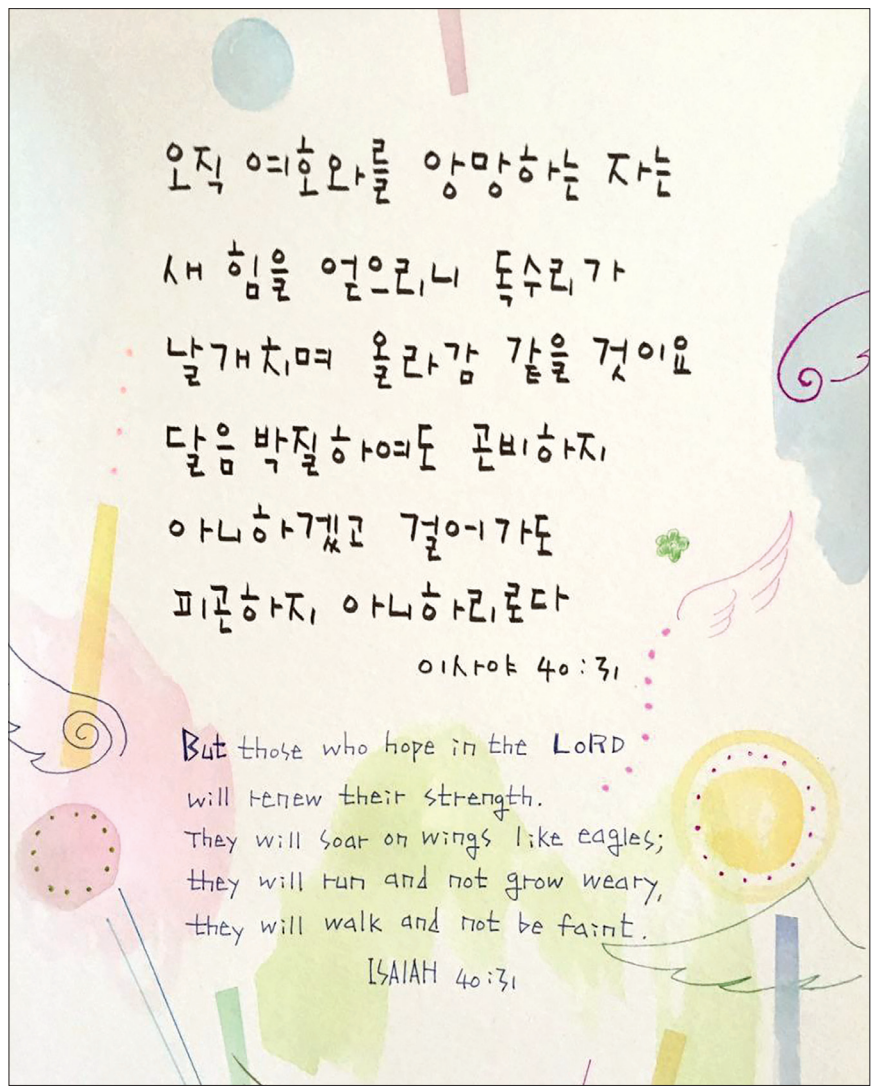
2017년 ‘글로벌 대담’에 출연한 스탠리 크레이그 토플 선교사. ©CGN

기도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원한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가장 행복한 그 삶을 살 수 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 어느새 내가 바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토플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살아야 할 행복한 삶을 되찾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박육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오픈하이머> (2)

# <오픈하이머>, 원자폭탄이 악마? 논란이 간과한 논란

일제, 악랄한 전쟁범죄 자행하다  
원자탄 두 발로 완전한 종결 맞아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인류의 악의  
집결된 무기로 종교적 자유 확립  
악한 정권 심판의 도구로 활용돼...

### 맨해튼 프로젝트, 긍정적 작용

박육주 박사님께서 지난 호에 이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화제작 <오픈하이머>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에는 킬리언 머피(J. 로버트 오픈하이머)를 비롯해 맷 데이먼(레슬리 그로브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루이스 스트로스), 에밀리 블란트(키티 오픈하이머), 플로렌스 퓨(진 태트록), 케네스 브래너(닐스 보어), 조쉬 하트넷, 케이지 애플렉 등이 출연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다룹니다. -편집자 주

### ◆종교적 박해와 관용: 종교 불관용의 정치적 부담

영화 <오픈하이머>의 서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발의 원폭을 제작한 군사계획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론물리학자 중 하나였던 J. 로버트 오픈하이머의 행적과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주로 휴머니즘 관점에서 원자폭탄이라는 끔찍한 대량살상무기가 탄생한 역사적 장면을 하나의 비극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 투하된 두 발의

지고 확산되는 역사로 볼 수 있다. 지난 2천여 년의 기독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박해의 위기 이전에는 종교적 관용의 부재라는 시대적 정황이 관여돼 있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 관용의 부재 상황은 거의 반드시 역사적 진보의 물결에 휩쓸려 상당히 과격한 방식으로 해소되었다.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박해는 약 25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그리고 이 장기간의 박해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250년 내내 항상 대규모 박해가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간헐적 박해 시기가 존재했으며, 각각의 전면적 박해는 그것을 주도한 황제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박해가 초래한 막중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됐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교회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였다고 해석할 수 있고, 학문적 입장에서 종교적 열망과 믿음을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로마 제국 이후 교회에 대단위 박해가 다시 발생한 것은 종교개혁 시기였다. 중세에도 이단 심판을 통한 종교적 불관용 시기가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 국지적 수준에서 머물렀다. 반면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을 옹호하는 정권들의 개신교 박해는 당시 기독교 세계 전체를 뒤흔든 대규모 사건이었다. 이 박해는 결국 가톨릭 국가들의 학문과 경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론물리학자 오픈하이머의 생애를 그려낸 영화, <오픈하이머>.

### 제국주의 일본에 내려진 역사의 심판

미국 역사학자 페레즈 자고린은 종교개혁 시기와 계몽주의 시대 초기 서구 역사가 종교적 자유와 관용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데는 크게 두 가지 신념이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개신교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이나 정부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 분리 원칙이다. 둘째는 개신교 바깥 세속정치 영역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정치를 위해, 왕이나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적 관용 원칙이다. 양측이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전자는 신앙을 위해, 후자는 정치 안정과 사회 복리를 위해 각각의 원칙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서로 확연히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독교회를 둘러싼 세계 역사는 잠깐씩 후퇴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결국 종교적 자유나 관용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초 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을 전면적으로 역행한 세 정권이 세계 역사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레닌과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 히틀러의 나치 독일, 그리고 군국주의 열강 일본 제국, 이 세 열강 정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 자유를 억압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종교 공동체의 강압적 소멸을 추구하고,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은 각각 자국 내 종교 공동체를 어용단체로 삼았다. 독일에서는 교회들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동조하며 그를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1930년대 내내,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이후 히틀러는 독일 내에서 철학적으로는 위버멘슈(초인),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독일 민족의 구세주로 자리매김했다. 제국주의 일본은 일왕을 신성시하며 그를 섬기는 내각과 군부(섬긴다는 명분으로 일

왕의 권위를 악용했던)에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고, 일왕 신격화에 일본 내 모든 종교 공동체, 특히 불교와 기독교회가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신도는 어차피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정령신앙을 믿는 종교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일왕 신격화를 받아들이고 주도했다. 불교계는 특정 개인을 신격화하는 것이 만물 안에 동등한 불성이 담겨 있다는 가르침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 역시 일제의 어용집단이 되었다. 반면 기독교회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행태를 우상숭배로 단정했기 때문에, 일왕 숭배나 전쟁영웅 숭배에 극렬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일본 본토 기독교 지도자들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 매장됐고,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여러 목회자와 신자들이 옥고를 치르고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일제의 영토 팽창은 일본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만큼이나 악랄한 여러 전쟁범죄를 자행하면서 한계에 이르렀고, 결국 미국의 원자탄 두 발로 완전한 종결에 이르렀다.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인류의 악의가 총체적으로 집결된 이 흉악한 무기가 종교적 자유 확립에 역행하는 악의 정권에 심판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다. 그래서 오픈하이머를 비롯한 다수의 물리학자와 군사기술자들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한 결과물과 그것을 일본에 투하하기로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은 영화 <오픈하이머>가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순수한 악으로만 보기 어렵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당시의 핵무기 투하는 인류 역사의 진보라는 커다란 맥락 안에서 여러 모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다못해 군국주의라는 광기에 미쳐 날뛰던 일본인들조차 그 위력을 보고 인류 역사의 정당하고 거대한 흐름을 역행할 때 어떤 형벌을 받는지 비로소 체감할 지경이었다. <계속>

박육주박사(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겸임교수)



보름스에서 '종교재판'을 받는 마르틴 루터.

원폭에 한해, 기독교적 시각으로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일단 한국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완전하게 종식시킨 '해방의 일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즉 세계교회사 관점에서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킨 이 두 발의 핵무기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교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계사관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 결과 이 자유가 점차 공고해

력 쇠퇴로 이어졌다. 당시 개신교로 개종한 이들 가운데는 온전한 이성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들려는 지식인들이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명성 높은 학자나 상공업 종사자들이었기에 개신교인을 죽이고 투옥하는 처사가 곧 해당 국가의 상공업 쇠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가 곧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종교적 박해와 진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한

##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 주 크레스트뷰(FL, Crestview)에 소재하고 있는 새생명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7년 된 교회로 북미주개척장로교단협의회(NAPARC)에 소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산하 지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1. 청빙요건

- 구령의 열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과 말씀연구에 착념하시고 영적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이끄실 목회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지정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후 목사 안수받으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로 설교와 상담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 사역함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시민권/영주권)
- 목회 경력 10년 이상 되신 분 (담임목사)
- 기혼자로서 연령이 45세 이상 되신 분

###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E-mail로 만 받습니다.)

- 이력서 (본인과 가족사진 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최종 학위서
- 신앙 고백서
- 목회 계획서
- 설교 (영상 파일) 2편 및 교회 홈페이지 설교동영상 사이트 소개
- 최근 교회주보 (2회)
- 추천서 (2장)

3. 보내실 곳 suk.c.kurtz@gmail.com 청빙위원회서기 서숙자 권사(850)699-5448

4. 서류 제출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도착)

### 5. 기타

- \*모든 서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 드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청빙하는 교역자의 사례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진목 목사 / 담임목사형위원장 신철 정로 / 서기 서숙자 권사  
New Life Korean Church | 5502 Old Bethel Rd, Crestvie, FL 302536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 \*\*\* 전기세 50~90% 절감 \*\*\*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